

전주-호주 멜버른 '아트플레이' 문화예술교류

예술가·어린이들 전주·멜버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예술 활동 추진해 공동 작품 제작·발표

전주시가 호주 멜버른의 세계적인 예술 교육 기관인 '아트플레이(ArtPlay)'와 문화예술교류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예술교육 대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호주 멜버른 아트플레이와 문화예술교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트플레이는 어린이들과 청년, 가족들이 함께하는 아동 예술과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알려졌다.

시와 멜버른 아트플레이와의 인연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열린 제1·2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에 아트플레이 참가자인 사이먼 스페인이 해외 연사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시가 예술놀이 국제워크숍 업무 협의와 벤치마킹을 위해 호주에 방문하면서 교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교류를 통해 전주시 예술가와 어린이들은 멜버른 예술가들과 전주와 멜버른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예술 활동을 추진해 공동 작품을 제작하

게 된다. 제작된 작품의 경우 올 10월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제3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 2021'을 통해 선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신)의 팔복예술공장을 수행단체로 선정하고, 실무회의를 열어 참여 예술인 선정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방침으로, 작품 제작방향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멜버른 아트플레이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교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놀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교육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을 중단하라"

전북지역 의료계, 정부 정책 강력 비판·철회 촉구

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역 의료계도 이같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라북도사회와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는 28일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비급여진료비 공개 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반대성명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비급여 진

료비용이 공개될 경우 의료행위가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장비 등 의료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비용의 단순 비교는 국민들이 의사를 부도덕한 존재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행정업무 증가는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압박하고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라북도사회와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는 28일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비급여진료비 공개 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시설공단, 어린이날 어린이 교통약자 이식물 무료 운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진료나 재화를 위해 병원을 찾은 어린이 교통약자가 어린이날만큼은 비용 걱정 없이 이지콜 택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도 지원한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다음 달 5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유선전화(063-271-2727)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야호부모학교 놀이특강 온라인 실시

내달 4·6·7일 진행... 내달 4일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도 개최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3회에 걸쳐 전주야호부모학교 놀이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먼저 다음 달 4일에는 아동권리옹호 활동가인 제충만 작가를 초청해 '코로나 시대! 놀이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 이

주, 놀이의 다양성으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놀이 관련 전문가와 아동 NGO, 야호 5대 플랜 관계자 등이 참여해 놀이터도시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논의하게 된다.

포럼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야호 5대 플랜 놀이정책'에 대해 기초강연에 나서게 되며, 김지연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와 김순규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일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이동훈 코끼리가는 길 대표,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제충만 아동권리옹호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포럼은 '전주시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윤상 기자

영화 음향 분야 거장들 전주서 만난다

5월 1~3일 케이사운드 마스터 클래스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컨퍼런스 개최

영화 '기생충'의 음향감독인 최태영 대표 등 한국영화계 음향 분야 거장들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사운드 마스터 클래스'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먼저 케이사운드 마스터 클래스의 경우 다음 달 1일과 2일 양일간 영화의 거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강연으로 열린다. 1일 오후 3시 CGV전주교사점에서는 오스카 4관왕의 영예를 얻은 영화 '기생충'의 음향감독인 최태영 라이브론 대표와 함께 '사운드 디자인과 내러티브'를 주제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2일 오후 3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한국호 음향 아티스트로 알려진 양대호 폴리아티스트를 만나 '소리의 창조, 폴리의 세계'를 주제로 영화 효과음원에 대해 소통하게 된다. 또한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의 활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채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유튜브 채널과 전주국제영화제 네이버 V라이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음향산업팀(063-281-4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이와 관련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인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전통소리, 자연의 소리 등 총 7개 분야 3만여 건의 영화 효과음원이 구축됐다.

서베이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케이사운드 행사를 통해 한국적 소리 자산과 정서를 담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구축 사업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음향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 30일 사전 공개

30일~5월 8일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YOUR TASTE JEONJU'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할 브랜드(BI)가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첫선을 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활용해 전주영화제작소 주차장에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광브랜드 'YOUR TASTE JEONJU'를 사전에 공개하는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하반기 공식 런칭을 앞두고 열리는 이 행사는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브랜드의 콘셉트와 패턴, 이미지 등을 사전 공개해 관광

거점도시 전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선보이게 되는 관광브랜드(BI) 'YOUR TASTE JEONJU'에는 '여행에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 당신의 전주'라는 의미가 담겼으며, 합죽선과 기와, 전통담, 단청 등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개발됐다.

관광브랜드 사전공개 행사에서는 전주 음식을 받는 디지털 체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